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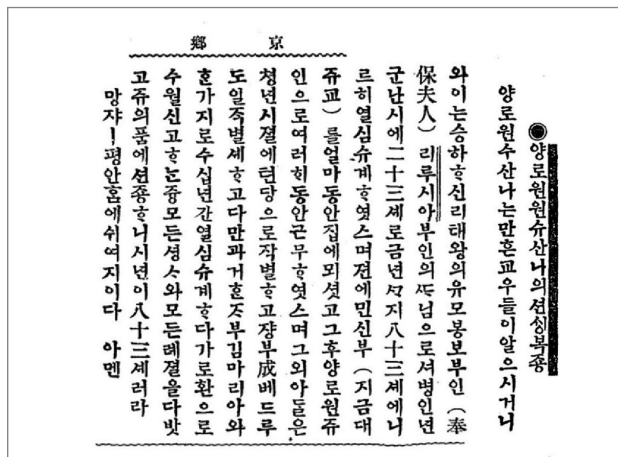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의 출석 증언자 원 수산나 소개 (1)

- 고종(高宗) 임금 유모의 딸이자 양로원 사업의 공로자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차, 교구재판)』를 편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 간행할 예정입니다. 시복 대상자로 선별된 병인 순교자들[1차 교구재판에는 29위, 2차 교황청 위임재판에는 26위]의 입교와 신앙, 체포와 순교, 시신 안장과 영적(靈蹟, 기적 현상), 유품과 기록에 대해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에게 전해 들은 신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진술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가 ‘시복재판록’입니다.

시복재판에 출석한 증언자들은 순교자들의 가족이나 지인, 동료들이 많았고, 박해 시기나 이후 교회가 재건되는 시기에 교회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역주본’ 안에 재판 증인(증언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실었습니다. 그중 순교자들과 관련이 깊어 해당 증언을 많이 남겼고 본인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증언자들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해기~신앙 자유 확보기[개항기]에 걸쳐 활동했던 신앙선조들과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1차 교구재판 3회차(1899년 6월 27일)와 2차 교구청 위임재판 2~3회차(1921년 2월 28일과 3월 1일)에 모두 출석하여 증언을 남긴 ‘원 수산나(1844~1926)’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26년 4월 17일 선종한 원 수산나의 부고 및 악력 기사 [전제 『경향잡지』, 588호(1926년 4월 30일), 183~184쪽.

1899년 시복재판에 출석한 원 수산나의 증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는 1858년경 베르뇌 주교에게 처음 성사를 받았고, 1866년 주교의 체포 이전까지 계속 성사를 받았습니다. 주교가 체포된 후 심문을 받은 과정은 증언자 원 수산나 조부의 지시로 원 수산나의 5촌이 목격했습니다. 다블뤼 주교, 브르트니에르 신부, 도리 신

부, 불리와 신부의 순교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 못하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블뤼 주교가 서울로 압송될 때 원 수산나의 고모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정의배(마르코)는 원 수산나 조부의 대부(代父)인데 원 수산나의 집을 다닐 때 자주 보았습니다. 체포와 순교 사실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최형(베드로)의 심문 과정과 순교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베르뇌 주교 등 새남터에서 순교한 이들의 시신을 박순집(베드로)이 찾아 안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필자는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역주본[3회차 앞 ‘증인 소개’]에서 원 수산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원 수산나는 1844년경 고양 용머리[현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에 속한 용두동] 태생으로 부친은 원 베드로이고, 모친은 이 루치아이다. 15세 때[1858년]에 성 베드로와 혼인했는데 43세 때[1886년]에 남편을 여의었다.

1866년 당시 23세였고, 1899년 시복재판 증언 당시 56세로 양로원[1885년 불랑 주교가 서울에 설립]의 운영자로 있었다.

* 1921년 시복재판 2차[교황청 위임재판] 2~3회차[2권]에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당시 며느리[김 마리아, 김윤근 신부의 누이]와 함께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 『병인지명사적』(22권 140쪽)에서 김기현 요한 세례자, 성연순[성연순(成連順)], 원 요한 사도[원 윤철(元允哲) 요한 세례자]의 치명 사정을 증언한 ‘양로원 원 수산나’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 원 수산나의 모친 이 루치아는 고종의 유모인 봉보부인(奉保夫人) 이씨이다. 고종의 생모이자 흥선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府太夫人) 민씨(閔氏)가 1896년 10월 11일, 뫼텔 주교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원 수산나는 ‘민 마리아’의 세례대모였다. 원 수산나는 1926년 4월 17일 83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고종 임금 유모 이 루치아의 딸이자 김윤근 신부의 사돈, 원 수산나

원 수산나는 당시 천주교회 내에서 고종(高宗) 임금 유모의 딸이자 불랑 주교가 건립한 양로원의 운영자로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 수산나의 부고 및 약력 기사[『경향잡지』, 588호(1926년 4월 30일), 183~184쪽]에서도 확인됩니다.[*1쪽의 사진 참조]

양로원 원(元) 수산나의 선생복종(善生福終,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음)

양로원 원 수산나는 많은 교우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승하하신 이태왕(李太王, 일제강점기 고종의 칭호)의 유모 봉보부인(奉保夫人, 종1품 국왕의 유모) 이 루치아의 따님으로서 병인년 군난시(軍難時, 박해기)에 23세로 금년까지 83세에 이르기까지 열심 수계(守誠, 신앙생활)하였으며 전에 민(閔, 뫼텔) 신부[지금 대주교]를 얼마 동안 집에 모셨고, 그후 양로원 주인(主人, 담당자, 운영자)으로 여러 해 동안 근무하였으며, 그 외아들은 청년 시절에 천당으로 작별하고, 장부(丈夫, 남편) 성(成) 베드로도 일찍 별세하고, 다만 과거(寡居)한[과부가 된] 자부(子婦, 며느리) 김 마리아와 한가지로 수십년간 열심 수계하다가 노환(老患)으로 수월(數月, 몇 개월) 신고(身苦)하는 중 [종부와 관련된] 모든 성사와 모든 예절을 다 받고 주[님]의 품에 선종하니 시년(時年, 그해 나이)이 83세이다. 망자(亡者)는 평안하게 쉬소서. 아멘 [*현대어로 변환, 한자 병기[협주] - 필자]

원 수산나의 모친 이 루치아는 고종의 유모로 봉보부인(奉保夫人)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교회사에서 ‘고종의 유모’로 유명한 사람은 1868년 순교자 박 마르타[『치명일기』 43번, ‘금상(今上, 현 국왕, 당시 고종)의 유모’]이기 때문에 원 수산나의 모친이 ‘박 마르타’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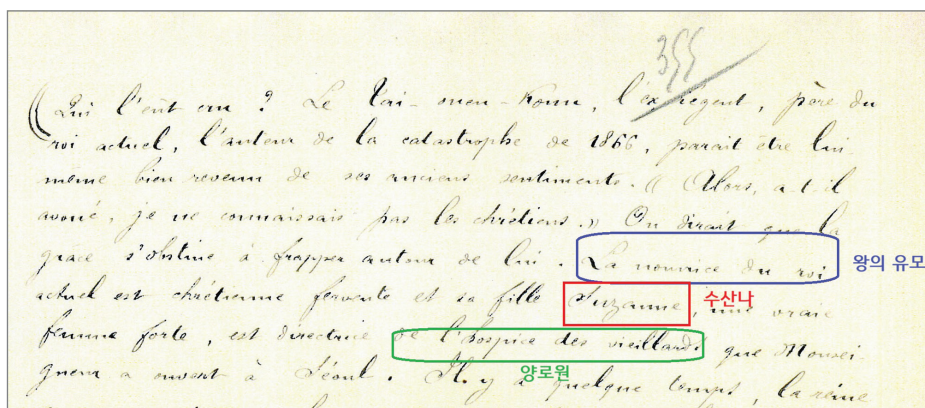
필자의 책임 아래 수원교회사연구소가 간행한 역주본 『병인지명사적』 2책[2020년, 320~321쪽, 각 주 27번]에는 고종의 ‘봉보부인’이 박 마르타로 잘못 서술되어 있고,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간행한 『뫼텔 주교 일기 2』(1993년판, 106쪽 각주 191번)에는 ‘수산나’가 ‘부대부인의 유모 박 마르타의 딸인 원 수산나’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오류[박 마르타의 딸 원 수산나]가 발견되는데, 『뫼텔 주교 일기 2』의 내용을 전거로 하여 고종의 생모이자 흥선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府太夫人) 민씨(閔氏)가 1896년 10월 11일, 뫼텔 주교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 수산나는 부대부인 민씨, 민 마리아의 세례대모였습니다.

필자가 2020년 간행 당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최근 원 수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오류를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종의 유모로 기록상 정식 품계를 받은 사람은 박 마르타가 아니라 이 루치아이고, 이 루치아의 딸이 원 수산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관변측 사료에 의하면, 봉보부인 이씨(李氏)는 1872년 1월(음력)부터 공식적으로 공상(供上, 관청에서 물품을 바침)을 받게 되었고, 1891년 12월 28일(양력 1892년 1월 27일)경 사망했습니다.〔『승정원일기』 1871년 12월 20일과 1891년 12월 28일 기사〕

선교사제들의 서한에도 ‘왕의 유모[이 루치아]의 딸’ 원 수산나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76년 5월 14~20일 블랑 신부가 서울 문밖에서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f.93~103b)에는 ‘왕의 유모의 딸’이 신부의 조선 입국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f.100)이 언급되어 있고, 1876년 10월 10일 블랑 신부가 서울 문밖에서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f.153~166)에는 ‘왕의 유모의 딸’이 그 모친의 회개를 권유하여 성공했다는 내용(f.166)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889년 5월 31일 빌렘 신부가 메즈 신학교의 한 지도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1, ff.339~358)에는 ‘왕의 유모 루치아’, ‘루치아의 딸 수산나’(ff.355~356)가 블랑 주교가 서울에 세운 양로원을 감독[운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1891년 8월부터 1933년 1월까지 기록된 ‘뫼텔 주교 일기’에는 때때로 원 수산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위에서 언급한 1896년 10월 11일 ‘민 마리아’의 세례 외에 1910년과 1912년 원 수산나의 투병 관련 내용, 1926년 원 수산나의 선종과 장례미사, 1927년 1주년 미사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중 『경향잡지』 588호 선종 기사에 명확히 나오지 않은 선종일(4월 17일)이 뫼텔 주교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뫼텔 주교 일기』 8, 2008, 43쪽〕 1912년 9월 12일과 14일 일기에는 원 수산나와 그 며느리 김 미리아가 언급되는데, 여기서 김 마리아가 김[윤근] 요셉 신부의 누이로 나옵니다.〔『뫼텔 주교 일기』 4, 1998, 169~170쪽〕 이를 통해 원 수산나와 김윤근 신부가 사돈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89년 5월 21일 빌렘 신부의 서한(A-MEP, Vol.581, f.355) 부분 - 국왕 유모의 딸 수산나와 양로원 언급

블랑 주교가 세운 양로원의 ‘으뜸’[윤영재, 원 수산나]

앞서 소개한 1889년 5월 31일 빌렘 신부의 서한에는 ‘왕의 유모 루치아의 딸 수산나’가 블랑 주교가 서울에 세운 양로원을 감독[운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A-MEP, vol.581, ff.355~356) 빌렘 신부의 서술에 의하면, 당시 양로원은 연고 없는 노인들을 모아 보살피 주었을 뿐 아니라 노인이 사망하면 그 장례까지 치러줌으로써 비신자들의 편견[천주교=불효(不孝)]을 깨고 천주교의 전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899년 시복재판 증언자로 나온 원 수산나는 스스로를 ‘양로원 으뜸[長]’이라고 말했고, 『경향잡지』 588호 선종 기사에는 ‘양로원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설립자 블랑 주교의 지시에 따라 양로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감독하는 직임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과부가 된 며느리 김 마리아와 함께 선종 전까지 양로원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랑 주교의 양로원 설립과 원 수산나의 양로원 운영에 대해서는 윤선자 교수의 논문(『한말·일제강점기 천주교회의 양로원 설립과 운영』, 『한국학논총』 31, 2009, 415~448쪽)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최근에 나온 윤선자 교수의 책에 다시 실렸습니다. 「1880~1940년대 천주교회의 양로원 설립과 운영」, 『20세기 한국사회와 천주교-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25, 237~269쪽.] 원 수산나와 관련된 윤선자 교수의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884년 리텔 주교에 이어 제7대 조선대목구장이 된 블랑 주교는 1885년 3월 15일 고아원을 건립하고, 4개월 후인 7월 2일에 서울 종로 동골(東谷, 현 관철동)에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하여 의지할 곳 없는 남녀 노인들을 받아들였다. 1888년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가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을 시작했는데, 수녀들은 고아들을 돌보는데 주력했고 양로원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펴지는 못했다. 블랑 주교도 명동성당 건립에 주력함으로써 양로원은 ‘고종의 유모 이 루치아의 딸인 원 수산나’가 관리해 나갔다.

1920년대 사회사업을 수행하던 애공회는 1926년 11월 20일 황금정(현 을지로 1가)에 19칸짜리 집을 매수하고 무의탁 병자 노인을 수용하여 정식으로 ‘양로원’을 설립했다. 이때 명동성당 옆에 있던 양로원 노인들도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로원에서 활동한 ‘고종의 유모 이 루치아의 딸인 원 수산나’가 83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도 황금정에 양로원이 설립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2025년 책, 239~252쪽 참조)

1876년 5월 14~20일 블랑 신부의 서한(A-MEP, vol.580, f.100)에 의하면, 원 수산나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여전한 시절에도 “왕의 유모의 딸로서 매우 열심인 신자였고 [냉담한] 남편과 어머니를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 수산나의 열정적인 신앙심과 자선 활동에 주목한 블랑 주교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양로원 사업을 원 수산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후 1926년 선종할 때까지 원 수산나가 운영하는 양로원은 유지되었고, 이후 애공회가 설립한 황금정 양로원으로 통합되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 수산나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양로원 사업에 참여한 최초의 공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